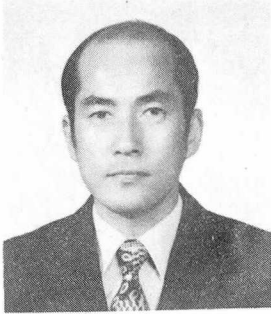


## “10년후를 생각하자”



윤 회 진  
(대월종돈장 대표)

**금**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양돈불황 걱정과 더불어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 같다.

최근에 일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수출여건이 유리해졌다고는 하나, 그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70년대보다(연간·일본 수입물량의 8%를 차지한 것이 고작이지만) 훨씬 못한 수준이며, 육질에 대한 평가 또한 신통치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망이 그리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와 경합관계라고 할 대만은 지난해 사육두수가 기록적인 670만두에 달하여 실어내기 작전으로 73,000톤 가까운(전년대비 37% 증가) 돼지고기를 수출하였고 일본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일**본의 양돈 역시 국제적으로 처한 무역상의 입장-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해외수입으로 대체한다-에 따라 “국제경쟁에 이기는 양

돈 기술을 창조하자”고 열을 올리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해외 의존형의 돼지나 기술도입에서 벗어나 사료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육방식으로 전환하고, 종돈면에서는 계통돈의 조성·유지와 그 이용방식을 국산 기술로 확립해서 하루빨리 독자적인 창조기술의 단계로 가자는 것이다. 일본에 돼지고기를 팔기 이전에 그들은 어떻게 돼지를 개량하고 있으며 어떤 돼지고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60년대 전반까지 일본에서 키우는 돼지는 중요크셔가 80%나 되고 버크셔가 8%, 랜드레이스가 2% 정도였다. '60년대 후반부터 랜드레이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73년에 최고로 중두수의 24.9%, 순종의 77.9%를 차지했다.

일본 돼지 육종사에서 Y-L시대라고 부르는 '68-70년 사이에 중요크셔와 랜드레이스의 교잡종이 호평을 받았으며, 그 후 잡종돼지의 시장점유율은 '75년에 71.5%, 최근에는 89%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84년의 육돈교배조합은 LY·D(여기서 Y는 대요크셔)가 48.6%, LY·H 5.2%, LH·D 5.0%, YD 4.3%, LD 4.1%, 기타 32.8%로 되어 있다. 한때 LH와 LY·H가 호평을 받은 적도 있으나 햄프셔는 '74년이후 점점 줄고 듀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종돈 수입경향은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종돈이 인기가 있어 '73년에 겨우 122두(6.8%)이던 것이 최근에는 4천두로 급증하여 90%가 넘고 순종 수입은 1/3도 안된다.

'84년 전국의 육돈 사육두수 가운데 하이브리드 돼지는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여러번 소개되었지만, '70년도부터 계통조성사업이란 것을 시작하여 지난해 6

월까지 13계통을 완료하고 33계통이 조성중에 있다. (L23, Y12, H6, D3, B2) 아직은 완성된 계통의 수가 적고 부계통계통의 완료시기가 얼마 안되어서 상업적인 육돈생산에 있어서의 보급율은 그다지 높지 못하나 오래지 않아 급속도로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9년 5월 이바라기현에서 탄생한 계통돈 제 1호인 랜드레이스 「로-즈」(계통명)의 LY모돈 보급율은 '84년에 2.1%에 불과하였으나 '90년에는 34.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장차 국내 육돈 생산의 50%를 이러한 계통조성돈에 의해서 생산하려는 야심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계통조성은 '65년부터 약 10년간 돼지고기의 대량소비·대량유통을 배경으로 「고품질의 균일한 돈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순종돈은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개체마다 체형과 능력에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품종보다는 능력도 좋고 균일한 계통을 만들어 최적조합에 의하여 계통간 교잡종을 생산하자는 것이다.

위낙 오랜 기간과 경비가 들고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라서 주로 국립축장과 지방(현)단위 축산시험장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계통은 조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더 크고 광역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립기관이 맡고 모계계통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육돈생산의 기초가 되므로 현(縣)축산시험장이 맡으며, 생산자가 계통돈을 이용하도록 보급하는 일은 민간(전국농협연합회)이 담당하여 삼위일체가 되어 잘도 하고 있다. 계통돈의 이용방법은 유지군(계통 GGP), 증식군(계통GP), 교잡용 종돈, F<sub>1</sub>종돈의 4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데 유지군은 계통의 핵심으로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야말로 유지에 충실하고, 유지군

은 숫자가 적으니만치 다음 증식군에서 일단 늘려서 배포하는 계통돈을 갖고 F<sub>1</sub>모돈을 생산하는 것이 교잡용 종돈군이다.

계통조합은 검정성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L-Y, YL의 F<sub>1</sub>번식성적과 F<sub>1</sub>(우)에 부계계통을 교배해서 생긴 삼원교잡종의 산육성적을 종합판정해서 제일 좋은 교배조합을 결정하고, 나중에 새로운 계통이 조성되어 더 나으면 물론 교배조합도 변경된다. 이와같이 적은 숫자의 유지군의 성적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많은 두수의 육돈생산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사업의 매력에 있는 것이다.

**요**즘 종돈개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계통조성의 필요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실제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는 농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일은 한 두 농장이 하는 것보다는(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자들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마땅히 정책으로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이 한 나라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다른 나라와 겨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돼지 모두를 한 생산단위를 보고 지금보다 한 계단 올려 놓을 수 있는 방안을 10년·20년 앞을 내다보고 짜내야 한다.

특히 종돈개량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방법이 나오고 시행착오도 줄어드는 법이다. 일본의 소비자나 육가공공장은 육질문제에 까다롭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돼지마리수 조절하는데 허둥대고 불황때에나 잠깐 밖으로 눈을 돌려서는 돼지고기 수출은 점점 더 어려울 것이다.

한국양돈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10년 후를 생각해 보자. \*